

법적 문제 없다지만...스프링클러 없이 호텔 개장 강행 논란

정부, 지역 경제 활성화 위해 '해남126 오시아노' 31일 개장 관광공사가 개발 맡고 400억 투입...지상 1~5층 120실 규모 연회장·객실 등 1~3층에 스프링클러 설치 안돼 화재 무방비

정부가 해남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새로 지은 호텔의 일부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한국관광공사는 오는 31일 해남군 화원면 화봉리 일대에서 4성급 리조트호텔 '해남126 오시아노'를 개장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이 호텔은 정부가 한국관광공사에 개발을 맡기고 400억원을 투입해 지은 것으로, 지상 1~5층 연면

적 9400여㎡에 120실 규모의 객실을 갖췄다. 문제는 연회장 등이 있는 1층부터 객실로 쓰이는 2, 3층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고 4~5층 객실에만 설치됐다는 점이다. 절반 가량의 객실에는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지 않은 셈이다. 이로 인해 호텔 운영 계약도 혼선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한국관광공사는 경쟁 입찰을 통해 호텔 위탁 경영사로 ㈜이지스를 선정하고, 이지스

측은 하얏트호텔을 호텔 운영 파트너사로 선정했으나 하얏트호텔 측은 스프링클러 미설치 등을 이유로 운영 계약을 파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소방법상 이 호텔에 스프링클러가 부분적으로 설치된 것은 불법이 아니다. 호텔 건물은 지난 2021년 건축 허가를 받았는데, 당시 소방법(2018년 개정)에서는 '6층 이상 숙박시설'에 한해서만 전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규정돼 있기 때문이다. 지난 2022년 개정된 소방법에서는 층 수와 무관하게 숙박시설 전 층에 스프링클러를 설치하도록 했으나, 기존 건축물에 대해 소급 적용되지는 않는다. 법적으로 문제가 없지만, 일각에서는 한국관광공사가 화재 피해와 예방에 대해 안일한 것 아니냐

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지난 8월 경기도 부천시에서 9층 규모 호텔에 불이 나 7명이 숨지는 사고가 발생하면서 소방 안전 문제가 화두로 올랐기 때문이다. 특히 부천 호텔 화재 현장 또한 발화 지점인 8층 객실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돼있지 않아 피해를 키웠다는 분석이 나왔는데, 이곳 역시 2004년 준공된 건물이라 소방법상 스프링클러 의무 설치 대상에서 벗어나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한국관광공사 측은 건축법, 소방법상 이상이 없었던만큼 개장 일정을 늦출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한국관광공사는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지 않을 방침이다. 개장 일정이 빠듯하고 스프링클러를 추가 설치하는 데 막대한 비용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특수객과 직원의 안전을 위해 외부 소방전문기관을 통해 소방 안전 관련 컨설팅을 받고, 스프링클러를 대체해 소방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추가 소방 시설을 보완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한국관광공사 관계자는 "지난해 11월 건축 준공 인가를 받을 때에도 소방서에서 철저한 안전점검을 거쳤으며,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 없이 준공을 했었다"며 "해남군 오시아노 관광단지 활성화를 위해 지역 관광과 경제를 부흥하기 위해 세우는 호텔이라 공사에서도 안전에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이해를 부탁드립니다"라고 말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은빛 바다 속으로 제9회 광주서창역새축제 개막을 하루 앞둔 16일 광주시 서구 서창동 서창독길 주변 역새밭에서 시민들이 역새를 감상하면서 산책하고 있다. 축제는 오는 20일까지 크락교부터 서창교까지 영산강변 일대에서 열린다. /나명주 기자 mjna@kwangju.co.kr

BTS 제이홉 일본 팬클럽 18일 장학금 전달식

북구에 희망상징 조형물 기탁도

광주출신 방탄소년단(BTS) 멤버 제이홉(본명 정호석)의 일본 서포터즈(팬클럽)가 북구에 희망을 상징하는 조형물(7월 12일자 광주일보 1면·사진)과 함께 미래세대를 위한 장학금을 전달한다. 광주시 북구는 오는 18일 오후 6시 남도향토음식박물관에서 제이홉의 일본 서포터즈 'HOPE-FULL PLACE'의 조형물 기탁식을 연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기탁식에서는 조형물 제막식과 함께 일본 팬들의 북구 지역 청소년들을 응원하기 위한 장학금 400만원도 함께 전달된다. HAPPY, LOVE, JUST DANCE, SUN, PEACE, STREET 7개 단어를 모아 'HOPE'를 상징하는 조형물은 서포터즈가 올해 3월부터 3개월간 373만원(3186만원)을 모아 조성한 조형물로 북구 삼각-일곡동 'HOPE STREET'(희망의 거리)에 세워진다. 또 조형물과 함께 지역 청소년들의 꿈을 지원



하는 장학금 400만원도 초록우산어린이재단에 전달할 예정이다. 이들은 "제이홉은 늘 우리에게 주는 것을 아끼지 않았고 그가 태어나고 자란 광주에 그 고마움을 전하고 싶다"고 취지를 밝혔다. 북구는 이번 장학금이 북구의 끼와 열정 있는 청소년에게 돌아갈 수 있도록 하고 초록우산어린이재단과 희망을 주제로 한 미술 공모전 등 연계 협력 사업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다민 기자 kdi@kwangju.co.kr

광주 아동학대 신고 급증... 증가율 '전국 2위'

5년새 194.1% 늘어

광주 아동학대 신고 증가율이 세종시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진태(부천 병)이 법무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광주에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 건수는 2019년 271건, 2020년 319건, 2021년 668건, 2022년 702건, 2023년 797건 등이었다. 광주는 2019년에서 2023년까지 5년 사이 신고율이 194.1%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세종시(63명→340명, 439.7% 증가)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증가율이었다.

전남에서는 2019년 451건, 2020년 434건, 2021년 770건, 2022년 813건, 2023년 905건으로 신고 건수가 늘어 5년 사이 100.6% 증가했다. 같은 기간 전국에서는 2019년 1만 4484건→2023년 2만 8292건으로 신고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검찰에 접수된 아동학대사범 수도 늘었는데, 2019년 7994명에서 2023년 1만 9468명으로 2.5배 가까이 된 것으로 집계됐다. 재범인원 역시 539명에서 2239명으로 4배 넘게 폭증했으며, 재범률(아동학대사범 접수 인원 대비 재범 인원 비율)은 2019년 6.7%에서 2023년 11.5%로 올랐다.

반면 법무부의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 건수는 2019년 88건에서 2023년 71건으로 오히려 뺏수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아동학대사건관리회의는 검사,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아동학대 사건의 발생 원인, 피해아동 및 아동학대 행위자의 심리적·정신적·육체적 상태 등에 관한 의견을 청취하는 기구다. 이진태 의원은 "아동학대는 계속 늘어나는데, 사회적 문제가 되면 순간적으로 대처 기구를 만들다 없어지곤 한다"며 "아동학대 재범률이 늘고 있는 만큼 법무부는 관련 대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경영위기 전남대병원 '노쇼' 때문에 더 힘드네

전남대병원을 비롯한 국립대병원이 의정갈등, 재정악화로 인한 경영 위기뿐 아니라 '노쇼(No show, 예약부도) 환자'로도 피해를 입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약부도는 진료 등을 예약한 뒤 아무 연락 없이 예약한 장소 등에 나타나지 않은 것을 뜻한다.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백승아(비례) 의원이 전국 10개 국립대병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남대병원은 지난 2022년부터 올해 6월까지 2년 6개월동안 총 13만 8960명의 환자가 예약 부도 행위를 한 것으로 집계됐다. 전남대병원에 2년 6개월 간 진료를 예약한 전체 환자 179만 1547명 중 7.8%가 예약 부도 환

자에 해당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강원대병원 13.9%(21만명), 제주대병원 9.7%(15만명), 충북대병원 9%(13만명) 다음으로 높은 비율이었다. 전국 국립대병원에서는 전체 예약환자 2000여만명 중 7.0%인 158만명이 예약 부도 행위를 한 것으로 확인됐다. 일각에서는 전남대병원이 적자 운영에 허덕이고 있던만큼 예약 부도 환자로 인한 손실도 상당할 것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전남대병원의 2023년부터 2024년 상반기까지 적자액은 359억여원으로, 서울대병원(1627억원), 경북대병원(612억원)에 이어 전국 세 번째로 적자 규모가 컸다. /유연재 기자 yjyou@kwangju.co.kr



광주문화신협

광주문화신협 이 평생 어부바 하겠습니다!

아름다운 금융 다채로운 금융 함께하는 금융

출자금 비과세 한도 상향
개인당 **2천만원** 까지 완전 비과세

자산규모
1조 5천억원

창립 이후
30년 연속 흑자경영

복지장학재단 운영

당기순이익의
9% 이상 지역사회 환원



광주문화신협
대표번호 1644-7990

· 본 점 · 여신사업부 · 양산지점 · 운암지점 · 매곡지점 · 첨단지점 · 동광주지점 · 문흥지점 · 동림지점 · 각화지점